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까마득한 날에 /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山脈)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어선 지고
 큰 강(江)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 지금 눈 내리고
 ㉡ 매화 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 이육사, 「광야」 -

(나)
 ㉢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 철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체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습니다그러.

㉤ 시름없이* 꽃을 주워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 한용운, 「해당화」 -

*시름없이 : 근심과 걱정으로 맥이 없이.

32.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들렸으랴’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변 사물의 실체를 의심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못하였으리라’라는 추측의 형식으로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의 현실적인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 ③ ‘끊임없는 광음’과 ‘부지런한 계절’을 병치하여 세월의 흐름이 화자가 느끼는 덧없음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지금’과 ‘다시 천고의 뒤’의 대비를 통해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노래의 씨’와 ‘부르게 하리라’의 대응을 통해 긴 세월을 견뎌 맞이할 세계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3.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꽃은 계절적 속성을 반영하여 피어나며,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게 해주는 동시에 지각하는 사람의 감정이 투영된 존재입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시다.

- ① ㉠에서는 차가운 이미지인 ‘눈’이 내릴 때 피어나는 꽃의 계절적 속성을 통해 인내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지조를 상징하는 ‘매화’의 향기를 지각하는 모습을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향한 결연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 ③ ㉢에서는 봄에 피어나는 ‘해당화’의 계절적 속성을 통해 기다림의 상황이 오래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는 화자와 대비되는 ‘철모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화자의 변하지 않는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에서는 꽃을 주워 ‘입술에’ 맞닿은 후 물음을 던지는 감각적 표현을 통해 애달픈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육사와 한용운의 시 세계에서 지향성은 창작의 원천이 되는 가치이다. 이육사의 시에 나타나는 지향성은 광복에 대한 확신으로 드러나곤 하는데, (가)에서는 태초의 시간을 지나 고통의 세월을 인고하여 구원자를 맞이하는 대목으로 구체화된다. 한편 한용운의 시에 나타나는 지향성 역시 광복을 가리키며 이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인해 오히려 광복에 대한 깊은 갈망이 두드러지고, (나)에서는 긴 기다림에 대한 한으로 구체화되며 시가 마무리된다.

- ① (가)에서 ‘하늘’이 열린 시기를 거쳐 ‘지금’이 된 것은, 태초의 시간을 지나 고통의 세월을 맞이하는 대목이겠군.
- ② (가)에서 ‘노래의 씨’가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로 표현되는 것은, 광복에 대한 지향성이 확신으로 표출되는 대목이겠군.
- ③ (나)에서 ‘봄’이 ‘오기’를 바라는 태도가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하는 태도로 변화하게 된 것은, 광복에 대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이에 도달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인한 결과겠군.
- ④ (나)에서 ‘봄바람’을 ‘야속’하다고 느끼게 된 것은, 광복에 대한 긴 기다림이 한으로 구체화된 결과겠군.
- ⑤ (가)에서 ‘광야’에 ‘초인’이 도달하는 것과, (나)에서 ‘꽃’이 눈물에 비쳐 아른거리는 모습은, 화자가 가진 지향성이 시 세계에 투영됨으로 인한 결과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32.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들렸으랴’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변 사물의 실체를 의심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풀이 ‘들렸으랴’는 설의적 표현이 맞지만, 화자가 주변 사물의 실체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다. 실체를 의심한다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느냐를 의심하는 것이다.

② ‘못하였으리라’라는 추측의 형식으로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의 현실적인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풀이 ‘못하였으리라’는 추측의 형식이 맞지만, 화자가 이를 통해 연모하는 대상의 능력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작품에서 ‘연모’라는 표현으로 돌아가보면,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한 것이지, 화자가 바다나 산맥을 연모했다고는 볼 수 없다.

③ ‘끊임없는 광음’과 ‘부지런한 계절’을 병치하여 세월의 흐름이 화자가 느끼는 덧없음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풀이 ‘끊임없는 광음’과 ‘부지런한 계절’을 병치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월의 흐름이 드러났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는 덧없음과는 관계가 없으며 인과관계적 사유 역시 연결고리가 없다.

④ ‘지금’과 ‘다시 천고의 뒤’의 대비를 통해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부각하고 있다.

풀이 ‘지금’과 ‘다시 천고의 뒤’는 초인의 존재 여부로 대비의 여지가 일부 있으며, 화자의 반성적 자세 역시 ‘가난한 노래의 씨’를 부린다는 대목에서 그 여지가 있다. 그러나 **화자가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은 아예 근거가 없다.**

⑤ ‘노래의 씨’와 ‘부르게 하리라’의 대응을 통해 긴 세월을 견뎌 맞이할 세계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풀이 ‘노래의 씨’는 다음 연의 ‘부르게 하리라’로 연결되어 그 씨앗이 발아되는 것을 연상케 한다. 이를 통해 ‘지금’의 순간이 ‘천고의 뒤’의 순간으로 이어져 긴 세월을 견뎌 맞이할 세계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보여준다.

임권의T의 평가원 코드 1

평가원은 운문의 ‘하리라’에서 ‘의지’를 정답선지로 낸 적이 있다. 평가원이 이걸 건드릴 수도 있다. 참고해라.

33.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꽃은 계절적 속성을 반영하여 피어나며,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게 해주는 동시에 지각하는 사람의 감정이 투영된 존재입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시다.

① ㉠에서는 차가운 이미지인 ‘눈’이 내릴 때 피어나는 꽃의 계절적 속성을 통해 인내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풀이 ‘눈’이 차가운 이미지라는 것을 감안하면, 추위에도 피어나는 매화의 인내적 태도가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② ㉡에서는 지조를 상징하는 ‘매화’의 향기를 지각하는 모습을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향한 결연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풀이 ‘매화’에 지조의 이미지를 대입하면, ‘홀로 아늑’한 속성은 화자가 지향하는 지조의 가치를 향한 결연한 분위기로 해석이 가능하다.

③ ㉢에서는 봄에 피어나는 ‘해당화’의 계절적 속성을 통해 기다림의 상황이 오래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풀이 ‘해당화’가 봄에 피어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벌써 늦봄이라는 것은 화자가 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음을 알 수 있다.

④ ㉣에서는 화자와 대비되는 ‘철모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화자의 변하지 않는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풀이 ‘철모르는 아이들’의은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고, 이에 비해 화자는 이를 못 들은 체한다. 따라서 ‘철모르는 아이들’과 화자의 태도는 대비됩니다. 그러나 **화자의 심정은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다가 ‘봄이 오고 나니 너무 일찍 왔다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변한다.** 따라서 화자의 변하지 않는 심정을 부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에서는 꽃을 주워 ‘입술에’ 맞닿은 후 물음을 던지는 감각적 표현을 통해 애달픈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풀이 ‘시름없이’는 근심과 걱정으로 맥이 없다는 뜻이다. 이를 감안하면 화자가 시름없이 꽃을 주워 입술에 대는 것은 화자의 애달픈 마음을 환기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에서 ‘하늘’이 열린 시기를 거쳐 ‘지금’이 된 것은, 태초의 시간을 지나 고통의 세월을 맞이하는 대목이겠군.

풀이 <보기>에 따르면 (가)에서는 태초의 시간을 지나 고통의 세월을 인고한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태초의 세월과 연결되고, ‘지금’은 ‘눈’과 같은 시련이 오는 때를 건넌다는 점에서 ‘고통의 세월’을 인고하는 시기와 연결된다.

② (가)에서 ‘노래의 씨’가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로 표현되는 것은, 광복에 대한 지향성이 확신으로 표출되는 대목이겠군.

풀이 <보기>에 따르면 화자의 지향성은 광복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난다. 화자의 지향성은 광복을 향하고, 이는 곧 확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연결되는 대목은 4연에서 화자가 심은 ‘노래의 씨’가 5연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로 발아하는 부분이다.

임권의T의 평가원 코드 2

평가원에서는 <보기>에 작품이 명시되었다면 <보기>의 말이 무조건 맞다. <보기>에서 ‘광복에 대한 지향성이 확신으로 표출된다’고 했으면, 그 부분이 작품에 있을 것이다. 작품에서 ‘광복에 대한 확신’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는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가 적합하다.

③ (나)에서 ‘봄’이 ‘오기’를 바라는 태도가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하는 태도로 변화하게 된 것은, 광복에 대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이에 도달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인한 결과겠군.

풀이 <보기>에 따르면 (나)의 화자는 광복에 대한 깊은 갈망을 보이지만 이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인다. 이가 연결되는 대목은 여러 가지라고 볼 수 있지만, ‘봄’이 ‘오기’를 바라는 태도가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하는 태도 역시 그 중 하나겠다.

④ (나)에서 ‘봄바람’을 ‘야속’하다고 느끼게 된 것은, 광복에 대한 긴 기다림이 한으로 구체화된 결과겠군.

풀이 우선 <보기>에서는 화자의 지향성이 ‘긴 기다림에 대한 한으로 구체화되며 시가 마무리된다’고 한다. 따라서 기다림에 대한 한이 구체화되는 부분은 시의 마지막 부분으로,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되’는 부분이다. <보기>에서 ‘마무리’되는 부분으로 짚어줬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이 ‘지향성이 한으로 구체화’되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봄바람’이 ‘야속’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순서상 봄바람을 야속하다고 느낀 후 긴 기다림이 한으로 구체화된 것이 적절하다.**

임권의T의 평가원 코드 3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현대시 <보기>문제가 떠올랐으면 정상이다. 거기서도 ‘재해석한 결과’라고 했을 때, 순서가 꼬여 있었다. 이는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현대시 문제를 보고 본 탄 문제로, 마찬가지로 평가원 패턴을 담고 있다.

⑤ (가)에서 ‘광야’에 ‘초인’이 도달하는 것과, (나)에서 ‘꽃’이 눈물에 비쳐 아른거리는 모습은, 화자가 가진 지향성이 시 세계에 투영됨으로 인한 결과겠군.

풀이 ‘광야’에 ‘초인’이 도달하는 것은 화자가 가진 지향성인 광복이 시 세계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꽃’이 눈물에 비쳐 아른거리 ‘둘도 되고 셋도 되’는 것은 화자의 지향성인 광복이 긴 기다림에 대한 한으로 구체화된 것이다.